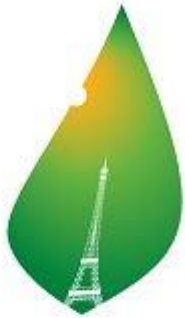


■ 2015 Paris COP21·COMP11

■ 기간: 2015.11.30 ~ 2015.12.11

■ 장소: Paris-Le Bourget

■ 로고 등 그림



PARIS2015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1·CMP11

COP21 공식로고

COP21 프랑스 의장단과 프랑스 정부가 공식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사용



TOUS ENSEMBLE
POUR LE CLIMAT

cop21.gouv.fr #COP21

"기후 행동을 위한 연합(United for climate actions)" 표시

누구나 이용 가능

COP21 개최까지 수많은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 중에서 지방정부, 협회, 공공 학교 문화 조직 및 미디어가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

이 표시는 COP21 참여하고 기후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이가 사용 가능



"공식 파트너" 표시

COP21에 재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용



"라벨" 표시

프랑스 국내나 국제적 조직이 COP21에 기여하는 이니셔티브 홍보 시 사용

■ Side-event & Exhibits

- 사이드 이벤트 등록 기간
2015.6.30. 오전 9시 ~ 2015.7.3 오후 5시 (현지시각, 중부유럽시각)
- 등록 방법
SEORS (온라인시스템)
- 자격
당사국이나 옵저버 단체로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의의

- 프랑스 역사상 최대 외교 행사이자 세계 기후 회의 역사상 최대 규모 예상(40,000명)
- 교토의정서 종료 후 2020년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될 법적 구속력 있는 신기후협정 타결 예정

■ COP21 주요 이슈

- 프랑스의 두 가지 주요 책임
호스트 국가로서, 참가자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작업 환경, 교통, 숙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COP 의장국가로서, 국가 간의 논의를 원활히 하고, 협상이 투명하고 포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번 회의는 상당히 중요한데, 최초로 보편적이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을 도출하여 인류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복력 있고 저탄소의 사회와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가지 주요 이슈
 1. 적응 (*보충 자료 1 참고)
이번 협정은 '감축', 즉 지구 온난화 2도씨 이내 제한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과 현재의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에 똑 같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각 국의 니즈와 역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신기후협정은 2020년 발효될 것이며, 장기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 해야 한다.
 2. INDCs(*보충 자료 2 참고)
각 국은 COP21 이전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국가의 기여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국제 기후 협상에서 새로운 시도이며, 프랑스는 각국의 기여방안을 준비하기 어려운 국가를 도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각 국의 실정에 맞는 기여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P21 개최 이전, UNFCCC 사무국은 이러한 기여방안의 전체적인 요약을 공개하고 그러한 노력의 집합적 효과를 제시할 것이다.

3. 재정 (*보충 자료 3 참고)

COP21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2020년부터 공공 민간 재원을 통해 선진국에서 연 1,000억 달러를 마련하는 것이다. 코펜하겐에서 만들어진 이 약속은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은 GCF를 통해 전달될텐데, 현재 GCF는 102억 달러의 초기 자금을 마련했으며, 그 중 프랑스는 10억 달러를 약속했다. 보다 확장하면 COP21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경제, 재정 이해당사자들이 투자를 재설정하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다.

4. 솔루션 아젠다(Agenda of Solutions) (*보충 자료 4 참고)

현재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도시, 지역, 기업, 협회 등 다양한 비 정부 이해관계자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이는 Agenda of Solutions. 이라고 알려져 있다. 2014년 9월 반기문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구체적인 행동, 모범관행의 교환, 지식 전수에 대한 트렌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국가의 공약을 보충하며, 경제 사회적 기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개별 목표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적응, 손실과 피해(Adaptation and loss and damage)

○ 배경과 이슈

감축(온실가스 저감)은 기후협상에서 주요 토픽으로 오래 동안 다루어졌으나, 이상 기후 현상이 더 잦아지고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이 점차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가장 취약한 국가들(군소도서국,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이 이러한 경향의 중심에서 적응 조치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실행을 옹호하고 있다.

적응에 해당하는 이슈들은 기후변화의 영향 이해, 기후변화 적응 관행(독이나 고가도로 건설 등)에서부터 적응 정책 이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계획, 메커니즘 이행 및 재정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후변화의 양상이 홍수나 폭풍 같은 산발적인 기후 현상과 해수면 상승 및 해양 산성화의 점진적인 현상으로 모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빠르게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 때문에 적응 이슈들은 이제 UNFCCC의 중심 과제이며, 리스크 및 재난 관리, 인도주의 지원 분야 이니셔티브들도 적응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적응 이슈는 파리 신기후협정 체결까지 이어질 논의들의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응이 중요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신기후협정은 특히 Agenda of Solutions를 통해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구체적 솔루션 이행을 제안하고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UNFCCC 당사국들은 자국의 INDC에 구체적인 적응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현재 존재하는 채널들을 통해 자국의 니즈와 노력들을 알릴 수도 있다.

○ 알아둘 점

리마 COP20은 파리 신기후협정이 감축과 같은 비중으로 온전히 적응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확인했다.

녹색기후기금 프레임워크는 감축과 적응에 동등하게 자금이 분배되어야 하며, 적응 재원의 최소 50%는 가장 취약한 국가들, 특히 군소도서국, 최빈개도국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적응과 손실 및 피해 조치는 각 국의 상황에 각기 다르다. UNFCCC는 다자 및 양자협력, 국가 및 민간 조치 등을 통해 적응과 손실 및 피해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

- 2004: 부에노스아이레스 작업 프로그램 - 취약성, 적응, 정보수집, 방법 등에 집중하여 행동 지속을 촉구
- 2006: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 기후변화 영향 관련 과학 지식과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함
- 2010: 적응 프레임워크 개설 - 적응계획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적응분야 행동을 강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지원할 목적(국가가 원할 시, 국가 적응 플랜 수립 및 이행 지원).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 창설

손실 및 피해 작업 프로그램 개설

- 2012: 개도국의 손실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설치
- 2013: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설립
 - 기후변화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이니셔티브들의 이행을 촉진하는 목적
- 2015.3.14-18: 일본 센다이 3차 재난위험경감회의(Third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개최
- 2016 이후: 이미 설립된 프로그램 및 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신기후협정 하에서 피드백 향상을 통해 지원

◦ 주요 수치

유엔 환경프로그램(UNEP)에 따르면 배출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을 때, 전 세계적 적응 비용은 2030년 연 1,500억 달러, 2050년 연 5,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군소도서국연합(AOSIS,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는 39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도국의 28%, UN 회원국의 20%를 차지하지만, 세계 인구 대비로는 1%에 불과하다.

◦ 기타

UNEP가 발행한 적응간극 보고서(Adaptation Gap Report)는 프랑스 기후학자들도 참여한 국제 연구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 파괴에서 CO2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진적 기후반응(transient climate response)* 불확실성은 2030년경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2015. 2. 23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발표.

*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정도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농도의 두 배에 도달할 경우 온도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와, 대기 중에 오래 체류하는 이산화탄소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그 뒤로도 계속 상승해 평형을 이룰 때까지 장기적으로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다. 전자는 점진적 기후반응(transient climate response) 값, 후자는 평형 기후민감도(equilibrium climate sensitivity) 값으로 표현된다. (한겨레, 2013.5.28)

■ 국가 결정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CDs)

○ 배경과 이슈

2009년 코펜하겐 COP15에서 선진국들은 국내 혹은 국제적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했다. 이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해 당사국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신흥국 및 개도국은 '국가적정감축행동(NAMA)'을 채택하고 있다.

포스트-2020 기후협정 협상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약(commitment)'이라는 단어는 '기여(contributions)'로 대체되었고, 이를 통해 야심차고 포용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위해 모든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INDC는 UNFCCC하에서 새롭게 채택한 수단이다. 당사국이 2020년 이후에 자국의 공약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매개체(vehicle)'이다. 당사국이 COP21 개최 전에 자국의 INDC를 제출하는 것은 파리 신기후협정 도출 협상의 중요한 요소이다.

○ INDC 내용

INDC 내용 및 INDC의 UNFCCC 제출 관련 규칙은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 범위: 각 국가의 결정에 따라서 INDC는 감축 목표(배출량 저감) 그리고/혹은 적응 목표로 구성
- 목표: 제출된 INDC는 해당 당사국의 2020년까지의 공약에서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공약은 국가의 개별 공약,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목표, 혹은 코펜하겐이나 칸쿤 합의 때 서명한 NAMA 모두 포함). 이는 선순환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 향상 및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를 촉진하여 당사국이 현재의 공약 수준과 비교했을 때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지침에 따르면 INDC 감축 내용은 상세히 밝히되, 적응 측면은 자율적으로 한다. 기준연도, 공약 기간 그리고/혹은 이행 일정, 온실가스 배출 추정 및 산정 방법론적 접근법, UNFCCC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해당 국가의 INDC가 어떻게 공정하고 활발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
- 차별화: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는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INDC는 각 국가의 개별 상황에 비추어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1992년 UNFCCC로 인해 나눠진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 간의 이분법을 완화한다. 하지만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은 역량 제한이 감안되어 INDC 수립에 있어서 얼마간의 여지가 주어질 것이다.
- 투명성: UNFCCC 사무국은 INDC가 제출되면 www.unfccc.int/2860.php에 이를 게재하고, 2015년 10월 1일까지 발표된 INDC를 바탕으로 그 총 효과를 2015년 11월 1일까지 종합보고서로 발표할 것이다.

INDC 준비 시 지원을 바라는 개도국을 돕기 위해 프랑스는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랑스 개발청(AFD, French Development Agency)와 Expertise France(프랑스 기술전문지식 관련 부서로 2015.1.1 프랑스 6개 기술지

원 운영체를 통합)를 통해 총 350만 유로를 지원했으며, 다른 공여국가도 함께 협력을 도모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COP21 전에 각국의 INDC발표를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했다. 3월 중순 스위스가 처음으로 INDC를 발표하여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 그 중 최소 30%는 스위스 내에서만 감축하기로 했다. 그 뒤로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을 약속했다.

노르웨이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을 약속, 멕시코는 적응 및 감축 목표를 설정,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7% 감축, 러시아연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를 감축하기로 했다. 2015년 3월 31일까지 INDC를 발표한 나라는 총 33개국이다.

○ 타임라인

- 2013: 바르샤바 결정에서 "기여(contribution)" 용어 등장. 모든 당사국에 각국의 기여 수립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거나 강화하여 UNFCCC 하에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나 기타 법적 수단, 법적 효과가 있는 공동의 협정을 통해 결정된 문서 채택을 촉구
- 2014: 리마 당사국회의 결정문(Lima Call for Climate Action)에서 2015년 일정과 "INDC" 개요 설명
- 2015.3.31: 역량이 되는 당사국들은 2015년 1/4분기까지 UNFCCC에 자국의 INDC 제출을 요청 받음, 모든 당사국들은 COP21 개최 훨씬 이전까지 INDC 발표 요청됨
- 2015.11.1: 10월 1일까지 제출된 INDC를 종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UNFCCC 종합보고서 출간

■ 녹색기후기금과 기후재정

○ 배경과 이슈

2009년 말 코펜하겐에서 국가수반들이 발표한 성명서 및 그 후 COP 결정들을 통해서,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연 1,000억 달러를 공동으로** (대안적인 재원조달을 포함하여 공공, 민간, 양자, 다자 재원으로부터) 마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투명한 접근방식의 이행 틀 안에서 개도국의 적응 감축 행동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원조달, 기술 및 역량 강화의 이행수단은 2015 파리 COP21에서 마련될 야심찬 신기후협정 협상의 중심 이슈이다.

1,000억 달러 약속에 더하여, 각 국은 더욱 회복력 있고, 저탄소의 모델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는 모든 재정 흐름을 재설정하여 전 세계의 수조 달러를 필요한 투자에 보내야 한다.

코펜하겐 COP15에서는 또한 **녹색기후기금(GCF)**이 창설되기도 했다. GCF는 개도국의 야심찬 적응 및 감축 행동을 재정지원 함으로써 회복력 있고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14년엔 상당한 초기 재원조성에 성공하여, 32개국이 1차 재원조성기간(2015-2018)을 위해 102억 달러를 약속했다. GCF는 향후 정기적으로 재원보충을 할 것이다. GCF 는 **감축과 적응에 동등하게 자금을 분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응 기금의 50%는 가장 취약한 국가(최빈개도국, 군소도서국)에 할당할 것이다.

GCF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파리 COP21까지 초기 자금을 계속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GCF 이사회는 24명의 이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도국, 선진국 출신이 각 12명씩 동수, 3년 임기제이다. 두명의 공동의장은 1년 임기로 이사위원 중 선진국, 개도국을 대표하여 각 1명씩 선출된다. 2013년 말, GCF는 UNFCCC와 GEF 이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임시 사무국체제에서 독립 사무국 체제로 순조롭게 전환한 바 있으며, 사무국은 대한민국 송도에 위치하고 있다. 헬라 쉬흐로호 초대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개발은행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부서 국장(Director of the Energy,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Department)을 역임한 바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가 GCF의 기금 수탁자로 지정되어 있다.

○ 알아들 점

GCF 자금 대부분(선진국의 기여금)은 약속된 1,000억 달러에 해당되는 것이지, GCF 자금이 1,000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000억 달러 중 일부(미확정 액수)만이 GCF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현재 "기후 재정(climate finance)"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지만, COP 기구들, 양자 및 다자 개발은행, OECD는 방법을 통일하여 1,000억 달러에 해당될 수 있는 공적·민간 및 양자·다자 자금과 혁신 재원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작업은 2015년 여름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며, 이로써 그간 개도국의 주요 우려 중 하나인 기후재정 흐름 추적성(traceability)을 보장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주요 타임라인

- 1991: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창설
- 1992: UNFCCC가 특별기후변화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최빈개도국펀드(Least Developed Countries)창설 (모두 GEF가 운영)
- 1997: 교토의정서가 적응기금(Adaptation Fund) 창설 (GEF 운영)
- 2009: 코펜하겐 COP15 개최 – 녹색기후기금(GCF) 창설을 위한 정치적 의지 확인
- 2010: 칸쿤 COP16 개최 – GCF 설립
- 2014: GCF 초기재원조성 (102억 달러)
- 2015.3.31: 파리에서 국제개발금융클럽(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lub, IDFC)회의 개최
- 2015.5.22: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와 예금공탁금고(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CDC)가 후원하는 기후재정의 날(Climate Finance Day)
- 2015.7.13-16: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발재원회의(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개최
- 2015.10: GCF 이사회 개최 – 자금 분배 개시 결정
- 2020: 연 1,000억 달러 조성 목표 해

○ 주요 수치

- 2010-2012년 동안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기후재정 흐름은 연 400억 달러~1,750억 달러로 추산 (UNFCCC 재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2014년 보고서)
- 저탄소 개발 및 녹색 에너지투자에는 연 7,000억 달러~1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http://www3.weforum.org/docs/IP/2013/ENVI/WEF_GreenInvestment_Report_2013.pdf]
- 2015-2030년 인프라 투자(연 약 6조 달러)는 저탄소 경제로 방향전환 필요 (2014 보고서 – 칼데론 전 멕시코 대통령 및 스텐 경 보고서: <http://newclimateeconomyreport.org/>)

■ Agenda of Solutions [리마-파리 액션플랜(Lima-Paris Action Plan)]

○ 배경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4년 9월 뉴욕에서 개최한 기후 정상회의에서 개발된 솔루션 아젠다(Agenda of Solutions)는 페루 리마 COP20에서 발표된 리마-파리 행동계획에 통합되었다.

리마-파리 액션플랜은 파리에서 타결될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COP20 페루 의장단과 COP21 프랑스 의장단, UNFCCC 사무국, UN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Agenda of Solutions는 정부 및 비정부 주체(기업, 지방정부, 국제 기구, NGOs, 토착 민족 등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의 협력 이니셔티브를 아우르며, 지방 및 지역 정부, 기업의 개별 의지 또한 포함한다.

*Agenda of Solutions은 국제 협정을 보완하는 모든 방안을 가리킨다. 국가와 비정부 기구가 함께 기후 변화 영향에 적응하며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가들의 약속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노력에 재정적 지원이 더해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의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는 실용적인 교환에 기초를 두고 있다. — 프랑스 대사관 인용

○ 목표

프랑스와 파트너들은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자신들의 행동과 약속을 파리 COP21 개최 및 그 이후까지 가시적으로 알리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UNFCCC 내에서 협상이 될 신기후협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Agenda of Solutions는

-현재 존재하며, 향후 확대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파리에서 각국이 제시할 배출량 감축 및 적응 목표에 신뢰성을 더하며,

-이러한 목표들을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마련한 명확한 액션플랜과 투자전략이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Agenda of Solutions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먼 향후까지 모든 국가의 목표를 지원할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탄소 발전 전략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가 및 비국가 주체의 폭넓은 연합이 같은 방향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지를 갖고 움직인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정치적인 의도도 가진다. 기후변화 감축은 발전 정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경제적 기회로서 작용한다.

○ Agenda of Solutions 이니셔티브 특징

- 다자 이해관계자 접근법 활용하여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국가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연계

- 각 분야와 행동 영역이 직면한 이슈와 맞추어,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

- 빈곤감소,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하여 기후 행동의 공동이익(co-benefits)을 모색하고 촉진
- 2020, 2030, 2050년에 각각 달성할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목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액션플랜 구축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니셔티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 투명성 증명을 위해 자국의 성과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 예시

- 뉴욕 기후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약
- 130개 이상의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 및 토착민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2020년까지 삼림황폐화를 반으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을 함
- 20개 이상 정부 와 30개 기구 및 기업이 최근 결성된 기후 스마트 농업을 위한 글로벌 동맹(Global Alliance for climate-smart agriculture)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힘
- 전 세계 2,000개 이상 도시 시장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4 메가톤 줄이기로 한 협정(compact) 체결

○ 주요 일정

- 2014.9.23: UN 반기문 사무총장의 기후 정상회의 뉴욕 개최
- 2014.12.11: 리마 기후 행동 고위급 회의
- 2015. 5.21-21: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기업, 금융 도시 행사(Business, Finance and Cities Event) 파리 개최
- 2015.6.29: UN 총회 의장이 뉴욕에서 기후변화 고위급 행사 개최
- 2015.7.1-2: World Summit on Climate and Territories 리옹에서 개최

○ 주요 정보

비국가 주체 이니셔티브 정보: <http://climateaction.unfccc.int/>

리마 기후행동 고위급 회의(Lima Climate Action High-Level Meeting):
http://unfccc.int/meetings/lima_dec_2014/items/8717.php